

# ESCO 혁신방안 수립에 부쳐



유제인 회장

인한 참사나 징후들을 보고 듣고 있을 것이다. 지구온난화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더 이상 과학적 질문이 아닌 정책적 우선순위의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 9월 발표된 'ESCO사업 혁신방안'은 이러한 기후변화대응체제로 가기 위한 체질개선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실천과제라고 본다. 에너지절약설비투자자 화석연료가 아닌 청정에너지의 개발과 함께 향후 기후변화를 주도하게 될 한 축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청정에너지개발이 장기전이라면 단기적으로 제한된 에너지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는 당장 실천할 수 있고 효과도 높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세계에너지협의회인 WEC의 보고서에 의하면 산업 공정, 건물, 수송 기술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적절한 최중이용기술을 활용할 경우 2020년까지 25%, 2050년까지는 40% 이상의 에너지절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국적컨설팅전문회사인 맥킨지&컴퍼니의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기술수준만이라도 잘 활용하면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감축할 수 있어, 향후 15년 안에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을 절반 이상까지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너지절약이 곧 생산이라는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

일례로 일본 도쿄는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이산화탄소(CO<sub>2</sub>) 발생량을 25%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대응체제로의 전환은 반짝 이슈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번 세기 안에 바다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적도의 섬나라 '투발로'만의 현실이 아니다.

반복해서 언급하지 않아도 최근 매스미디어를 통해 세계 각국의 기상이변으로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치고 있는 도시 중 하나다. 이 중 하나가 지난 2002년부터 도쿄도 내 대규모 에너지사업장에 대한 '5년 단위 이산화탄소 삭감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연료·열·전기 사용량이 연간 1500kl 이상되는 13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쿄도는 기업이 제출한 계획서와 보고서에 대해 5단계 평가를 내리고, 그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서 공표한다고 한다.

이로 인한 결과는 방문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올해 극심한 무더위 속에서도 전력 사용량이 오히려 10%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피크치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국내의 사정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에너지효율화 기술을 통한 전략 정책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우리나라 서울시는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ESCO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ESCO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입증된 ESCO사업이 에너지절약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사실 ESCO는 지난 1992년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총 9130억 원의 정책자금이 지원돼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에너지절약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잠재력에 비해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민간 자금 활용의 문제, ESCO의 전문기술인력 미흡 등을 꼽았다. 따라서 탄소펀드 활용을 통한 민간자금 조달, 전문기술인력 양성프로그램을 비롯해 공공부문 ESCO사업 활성화와 해외 ESCO시장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장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제는 이러한 정책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느냐의 문제가 남았다. 제목만 다를 뿐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수준이라면 ESCO로서나 정부로서나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나갈 수 없다고 본다. 관계자 모두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다.